

휴일 · 명절까지 집어삼킨 '신종 코로나' 공포

도심 관광지 썰렁한 주말
정월 대보름 행사도 취소
영화관 유원지 인적 드문
찜질방 사우나 발길 끊겨

광주와 전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첫 휴일인 9일 시내 곳곳은 인적이 끊겨 폐쇄된 도시처럼 한산했다.

2월 두 번째 주말이자 정월대보름인 8일 도 도심 변화는 물론 예년이면 가족단위 나들이객으로 붐볐을 민속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에도 발길이 뜸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됐던 대보름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고, 공연·전시장과 영화관 역시 평소보다 입장객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국립광주박물관과 시립민속박물관 등에서는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을 맞아 한해의 풍년과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하고 액운을 물리치며 건강과 행복을 빌기 위해 풍물패 공연과 달집태우기, 고싸움, 쥐뿔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나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잇따르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행사를 열지 않았다.

광주 서구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한낮인데도 관람객의 발길이 거의 없어 썰렁했다. 관람권 판매기 앞에서 만난 시민 장모씨(38·여)는 "평소 예매를 하지 않으면 원하는 시간에 영화를 보기 힘들었던 이곳이 이렇게까지 한산한 것은 처음 본다"면서 "신종 코로나 감염이 염려되어 외출을 망설였지만 관람객이 거의 없어 영화관을 전세 낸 기분"이라고 말했다.

인근의 다른 영화관도 상황은 별반 다르



8일 오후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은 민중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이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 확진환자 3명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뉴스1

지 않았다. 예매율이 대부분 5%를 밑돌았으며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만 눈에 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16·18·22번째 확진자가 거주하거나 재직중인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는 주차장이 텅텅 빌 정도로 한산했고, 광주송정역은 방역당국이 탑승객들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방역 활동을 벌이느라 하루종일 분주했다.

평소 주말이면 쇼핑하는 사람으로 크게 붐볐을 백화점들 역시 손님 발길이 끊겨 썰렁했다.

오히려 둘째 주 일요일을 맞아 일제히 휴무에 들어간 대형마트들은 한숨을 돌렸다. 휴전한 상태에서 매장 내부를 점검하

고 소독 등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리도 뒤늦게 기승을 부리는 한파와 겹쳐 스산한 분위기였다. 간혹 눈에 띄는 시민들은 마스크나 목도리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첨단 쌍암공원과 상무시민공원 등은 아침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우치공원이 있는 광주패밀리랜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루 평균 700~1천 명 가량이 이용했던 이곳은 광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지난 4일 이후 하루 50명 꼴로 대폭 줄었으며, 단체 방문은 모두 취소됐다.

패밀리랜드 관계자는 "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번주부터 이용객이 90% 가까이 줄었다"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휴일인데도 사실상 개점 휴업"이라고 하소연했다.

대면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찜질방과 사우나 업주들도 울상이다. 광주 북구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주말 오후에 손님이 가장 몰리지만 이번 주는 월요일 오전보다도 입장객이 줄었다"면서 "일반적인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온도가 올라가면 모두 소멸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을 없애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털어놓았다. **오유나 기자**

행안부 지정 신규마을기업
전남지역 10개소 지정 성과

전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2020년 1차 신규 마을기업으로 전남에서 10개소가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마을기업은 ㈜한인계마을기업(목포시), 꼬불꼬불곶충나라(여수시), 농업회사법인 화목마을(순천시), ㈜해우(광양시), 삼기흑찰옥수수영농조합(곡성군), 자연속에영농조합(장흥군), 비슬안(해남군), 농업회사법인연호(주)(해남군), 드림빌사과테마공원마을(장성군), 청산도의미래(완도군) 등이다. 도가 추천한 10개 기업 모두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한 결과로 분석됐다.

마을기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장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홍보 등 판로 지원 사업과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전남도는 오는 6월 지정될 2020년 2차 마을기업으로 전남의 우수한 기업들이 다수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산림소득창출 지원”

도, 임업경쟁력 강화 추진

전남도는 9일 소량 생산 임산물 가공·유통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앙 공모사업에 참여할 전문임업인 생산자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중앙단위 공모사업의 경우 최소 2억원에서 최대 20억원의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자본 임업인은 보조금 자부담 처리가 어려워 참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희망자는 시·군 산림부서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임업인은 1년 이상 임업경영실적이 필요하고, 생산자단체는 1년 이상 법인 운영실적과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조합(5인 이상 농업인)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자본 임산물 생산자들이 보다 쉽게 가공·유통 할 수 있도록 5천만원에서 1억원 이내로 건축, 가공장비, 위생·판매시설 장비 등 시설을 지원받게 된다. **허성은 기자**

광주시, 수출진흥자금 30억원 용자조기 지원키로

최근 1년간 실적 있거나 관련 사업 참여업체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최소화 위해 긴급 시행

광주시는 세계 경기 둔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조기 용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용자지원 대상은 광주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거나 △2019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관련 지원사업 참여 업체면 신청이 가

능하다.

다만 지난 2018년 또는 2019년도에 이미 지원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용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회 참가 뿐만 아니라 해외 규격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관련 사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자금 지원은 업체당 3억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변동금리) 조건이며, 10일부터 광주시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

에 공고한다. 24일부터 3월20일까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062-960-2625)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광주시는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촉진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2019년까지 312개 업체에 수출진흥자금 543억원을 저리 용자로 지원해왔다.

이경 광주시 기업육성과장은 "지금까지 수출진흥자금 용자를 매년 하반기에 지원했지만 계속되는 통상환경 악화에 선제적 대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중소수출기업의 자금난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수출진흥자금 용자를 긴급 조기 지원한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